

# 중국 길림성교육청과 우호 협력 강화

서거석 교육감, 길림성 방문  
교류·협력범위 확대 협약  
국제교류수업 네트워크 강화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4일 중국 길림성을 방문해 장홍빈(張洪斌) 길림성 교육청장, 길림성 교육실무위원들과 만나 국제교류 협력에 대해 협의한 후, '교육교류·협력범위 확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중국 길림성교육청이 우호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4일 중국 길림성을 방문해 장홍빈(張洪斌) 길림성 교육청장, 길림성 교육실무위원들과 만나 국제교류 협력에 대해 협의한 후, '교육교류·협력범위 확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국제교류 협력은 1996년 시작해 올해 29년째를 맞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제교류수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방향 △학생 및 교직원의 상호방문을 위한 지원책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력 증진 방안 △교원 양성 과정 등이다.

이러 25일에는 길림성실험중학교 및 장춘시범대학교를 찾아 국제교류수업 인프라 현황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 길림성 내 학교와 국제교류수업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학생·교직원 교류 협력 및 학력 증진 등 교육 정책

에 관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지자체나 교육청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학생과 교사의 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국제교류수업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24~27일 중국 출장길에 올랐다.

/장은성 기자

## 한국어교육 국제적 확산 실현

전북대, 카자흐스탄에 '새만금 한글학당' 개소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카자흐스탄에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새만금 한글학당'을 개소했다.  
25일 전북대에 따르면 올해 초 전북 국제협력진흥원이 주관하는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에 선정, 지난 2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아블라이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교와 알마티주 코나예브 고려인 문화센터에 새만금 한글학당을 개소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카자흐스탄 새만금 한글학당은 6월 알마티 고려인 문화센터와 코나예브 고려인 문화센터에서의 수업을 시작으로,

아블라이한 대학교가 개강하는 9월부터는 초·중급 수업 모두를 개강한다.  
새만금 한글학당이 열리는 알마티는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로 4만 여명의 고려인을 포함한 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많은 고려인들이 한국에서의 정착을 원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모로코 등 3개국에 새만금 한글학당을 개설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카자흐스탄의 새만금 한글학당 사업은 한국어 보급 및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카자흐스탄에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새만금 한글학당'을 개소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유학생 5,000명 유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대학으로서 아프리카부터 중앙아시아까지 공공외교의

지평을 넓혀 한글을 보급하고, 이를 통해 유학생 유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함께 지킨 안전 수칙, 함께 누릴 안심 세상'

전북자치도교육청, 안전주간 공모 수상작 발표... 총 10편 선정  
표어-번안초 장희원 교사·사진-인봉초 최민경 교사 '최우수' 학생 안전교육·안전 캠페인 등 안전사고 예방 자료로 활용

전주대, 실감미디어 분야  
지산학 쇼케이스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안전주간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표어·짧은 글 △안전 실천 내용을 담은 사진·동영상(숏컷, 숏폼 등)·포스터 등 2개 분야로 진행됐다.  
2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공모 결과 총 93개 작품이 접수,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부문별로 최우수상 1작품, 우수상 2작품, 장려상 2작품 등 총 10작품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표어부문에서는 △최우수상: 함께 지킨 안전 수칙, 함께 누릴 안심 세상(번안초 장희원 교사) △우수상: 스마트폰 보며 걷는 걸음, 안대 쓰고 걷는 걸음(화산중 박재원 학생), 안전점검은 미리미리 안전사고는 멀리멀리(감사관실 진병국 주무관) △장

려상: 안전점검은 O.K.(영생고 이정재 학생), 안전이 제일 '이지'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제일 'Easy'(장계중 성하현 학생) 등이다.  
또 동영상(사진) 등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전주인봉초 최민경 교사('안전' safety, 사진) △우수상: 전주삼천초 윤보영 학생(동영상), 이리삼성초 윤지민 학생(포스터) △장려상: 익산가온초 김고은 교사(동영상), 전주한들초 이주선 학생(동영상)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학생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 등 안전사고 예방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우리 주변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행동을 잘 꼬집고, 경각심을 갖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가족들이 안전문화를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인봉초 최민경 교사작 '안전' safety

연합 해의 봉사로 운영된다.  
이날 발대식에서 최연성 부총장은 "국립군산대학교를 대표하는 우리 학생들이 몽골에서 봉사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한층 더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라며, "11박 12일 동안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써 넓은 시야를 갖추고 안전하게 다녀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 2024학년도 하계 '잇다 프로젝트' 발대식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는 지난 24일 오후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학생 역량 강화, 대학 국제화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2024학년도 '잇다(International Trend Trade Agreement)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립군산대 하계 잇다 프로젝트 단원 24명은 25일부터 7월 6일, 11박 12

일 동안 몽골(국립초중등학교, 국립특수학교)에서 교육봉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심기 등의 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프로젝트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하계 해외 봉사는 국립군산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몽골국립교육대, 몽골과학기술대, 몽골농업대학 학생 각각 4명씩 총 12명이 참여하는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S등급'

전주대, 올해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서  
지자체 연계 3개 특성화 분야별  
관련기관과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 '인정'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4년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III유형)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서 전국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은 대학-지자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사립대학 66교에 국고 2,375억 원(2024년 기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차평가는 2023년 추진 실적(80%) 및 2024년 사업 추진계획(20%)에 대해 서면 검토 후 패널 평가(질의응답 포함)를 통해 절대평가로 대학별 등급을 부여했다.  
이에 전주대는 지자체 연계 3개 특성화 분야(문화·관광, 농생명·식품, 탄소융합·에너지)를

정하고 학사 구조를 개편, 마이크로전공 기반 모듈형 융복합 과정을 구축, 운영했다. 또 3개 특성화 분야별로 지역의 민간기업과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거버넌스를 구축한 점, 특성화 분야 맞춤형 학사 지도 체계를 구축한 점, 지역 정주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박진배 총장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전북지역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학습 여건과 교육 환경을 개선해 왔다"며 "학생-대학-지역이 함께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I유형) 성과평가에서도 전국 최고등급인 교육혁신 전략 S등급을 받은 바 있다. /장은성 기자



##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 도내 거점대학들과 '맞손'

전북교육청, 전주대·우석대 등과 차례로 협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내 거점 대학과 손을 맞잡았다.  
2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북대학교를 시작으로 18일 전주대학교, 19일 우석대학교·원광대학교, 21일 국립군산대학교와 차례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농산어촌·원도심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교육청과 협약 대학은 △특화된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학생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대학과의 고교 연계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학생 참여 △협약기관 연계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위탁 교육 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교에서 제출한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사업 신청서를 자체 심의 후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 학교로 선정되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각각 1억원씩, 연 2억원을 5년간 지원받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고교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나아가 지역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상호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초등생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전북자치도교육청, 133개 학교 222개 프로그램 지원  
도내 초등 2-6학년 학생들 대상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여름방학 캠프로 초등학생들의 학습도약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2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2~6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습도약 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5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한다.  
이는 학습지원대상학생 또는 학습보충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담임(교과)교사 등이 방학 동안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에 도내 133개교에서 222개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 수준 및 상황을 고려해 교과목(국어·수학·영어) 보충 지도와, 학습 의욕 고취를 위한 교내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된다.  
임대식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학습결손이 발생하기 쉬운 방학 기간에 학생들이 부족한 영역을 보완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흥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